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9월

선교편지 제 8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학사역을 통하여 현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진 (Jean)'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학원 사역을 진행하는 '마띠 고등학교'로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2년전에 마띠 지역이 아닌 디고스 시내에서부터 무작정 찾아온 학생입니다. 즉, 마띠 고등학교가 아닌 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비교적 먼 길을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진'은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30 귀절을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암송했던 학생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고등학교내에서 공부도 잘해서, 저희 장학사역을 통해서 디고스 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Cor Jesu University)로 진학하여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디고스 예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의 친한 친구들도 교회로 전도를 해서 교회 찬양팀으로 봉사를 잘 할수 있게 인도한 너무도 귀한 학생입니다. 지난 7월말 뉴욕예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을때, 장학생 대표 3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여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의 오빠가 마을 근처에서 조직 폭력배 (Gang)들의 칼에 찔려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조직 폭력배를 만나서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진'의 오빠는 아주 처참하게 살해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몇 주 전, '진'의 집에 심방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제미를 전해 주었을때, '진'의 부모님이 성실하고 똑똑한 아들과 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보았던지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의 오빠가 사고를 당한 다음날, 기도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진'의 집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어머니와 '진'이 얼마나 상심하고, 울었을지 짐작이 될 정도로 하루만에 얼굴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사고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니,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조직 폭력배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하게 악역향을 끼치는지, 위기감으로 인하여 기도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고가 난지 일주일만에 이곳 현지에서 행해지는 장례 절차를 따라 마지막 장지까지 동행 했습니다. 가족과 마을 주민, 그리고 사망한 오빠의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장지로 이동을 하는 행렬의 맨 마지막에 저희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지에 거의 도착 할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장례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낸 조직 폭력배가 나타났다는 고함 소리와 함께 갑자기 장례 행렬을 모두 이탈하고 패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돌과 막대기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뛰어 다니며 방어와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의 가족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소리를 높여 더욱 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하고 장지에 도착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들이닥칠 것 같은 조직 폭력배의 공격을 대비하는 가운데 어수선 하기만 합니다. 장례식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진'과 어머니의 통곡은 끊이질 않습니다. '진'과 가족을 애써 위로해보지만, 부족함만 느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참석한 여러 장례식 중에서 이번처럼 안타깝고, 슬프고, 살벌한 장례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디고스’는 마약, 매춘, 동성애 그리고 AIDS의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로 조직 폭력배들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타 지역에서 디고스로 유입이 되어 영역 다툼까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년전에도 저희 찬양팀에 있던 여학생의 아버지도 조직 폭력배의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디고스 내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학생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등학교 내에도 조직 폭력배에 소속된 학생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각 고등학교마다 ‘Gang Free School’로 선포하고, 지역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내에서 조직 폭력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익핏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가 익핏 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정식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만으로 또한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디고스 예일 교회’가 학교 교육에 참여 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선 자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예배와 성경 공부등을 인도하고, 토요일에는 기존 성경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익핏 지역의 선교를 품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자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 7월말 뉴욕예일교회가 단기선교로 이곳 익핏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교장 선생님과 마을 대표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이러한 귀한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변 상황이 점점 더 악해 지는 가운데, 마침내 익핏 지역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고, 설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익핏 지역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귀한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익핏 지역에도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의 긴 여정이 온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선교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현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침내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매년 수차례 세례식에 참여하였지만, 선교지에서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수고를 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르고,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여러번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제 아내도 동일한 감동으로 인하여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 감격할진대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 하실까를 생각하면, '세례식'을 통하여 저희를 이곳까지 부르신 뜻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목표가 분명해 짐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함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날에 삼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하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부족한 저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천명'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 제목인 줄 알지만, 그만큼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조심스럽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천명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행 2:40, 41)**

'디고스 예일 교회'는 성전 건축이 아직 완공 되지 않은 1월 첫주에 4명이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3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각종 예배와 성경공부등은 물론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담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히 '세례식'은 매월 진행해도 부족하겠지만, 교회가 설립된 첫해인 까닭에 6월과 12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다려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6월초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장년 70 여명, 유년 주일 학교 학생이 30 여명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현지 카톨릭에서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 죄, 구원, ...' 등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기회로 미루며 주저하는 중에, 첫 10명이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작성한 10명을 위하여 4주동안 예배 후에 좀 더 체계적인 기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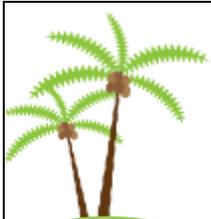
그런데 교육을 거의 마칠 즈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젊은 부부가 주일 전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 심한 부부 싸움을 하고 세례를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두 명도 주일 전 날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중도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주일에 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세례 받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례 받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세례식을 앞두고, 좀 더 많은 기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정했던 일정보다 한 달을 더 늦추어 같이 기도하면서, 세례 예정자들이 회중들 앞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9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95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수명을 200년 정도 연장 시켜서, 이 모든 일을 완수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디고스 예일 교회'와 또한 앞으로 이 지역에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들을 통하여 오고오는 세대에 이 일을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 16)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